

“식용견 금지 지원책 혼란 가중... 보호대책 마련을”

‘개식용종식법’ 시행된 지 105일 ‘마리당 60만원’ 구체적 계획 전무 광주·전남 동물보호소 포화 상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식용견 업소 지원 금액 식용견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인데다 동물 보호소의 과포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폐쇄하고 식용견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8월7일 정식 시행됐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화되고 이때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과 유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밝히면서 전국 개농장에 약 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

고, 개식용 업계는 5898개소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지난 8월 초 기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사육 농장과 개고기 판매업소는 광주시 30개소(개 사육 농장 9곳·개고기 유통업 7곳·개고기 판매업소 14곳), 전남도 231개소(개 사육 농장 135곳·개고기 판매업소 96곳)다.

정부는 개 1마리당 폐업 지원비를 2024년 60만원, 2025년 40만원, 2026년 20만원 등 차등 지원하며 내년에 1095억원 등 3년간 약 3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지만 그것 뿐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없다.

폐업을 결정한 업소의 개를 대상으로 보상하지만, 보상 시점이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강제로 교배를 통해 개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에서 개 식용 관련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현재 사육되고 있는 전국 50만 마리(추정)의 식용견들이 개식용종식법으로 갑작스레 풀려나는 것도 마땅한 대책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개농장의 폐업 전 모습.

민현기 기자

없다. 전·폐업을 신고한 사육장이 늘어나면서 잔여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안락사 없이 입양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 뿐이다. 당연히 뚜렷한 대책도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떠도는 개들은 원칙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

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유기견 만으로도 동물보호소는 포화상태다.

광주의 경우 광주 북구에서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이며 전남에서는 순천에 2곳, 나머지 21개 시·군에서 각각 1곳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미 많은 유기·유실 동물이 보호 조치 되면서 포화상태다.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으로 기르는 개는 대부분 맹견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잔여견을 위한 별도의 수용 시설을 마련해 원활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육 더펫하우스협동조합 대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식용견을 기르는 업주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끔 돕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남겨진 잔여견들을 인수해야 한다”며 “식용견의 경우 사회접촉이 없어 일반 보호소에서 함께 수용하면 안된다. 별도 수용시설을 마련해 맞춤형 교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잔여견들이 국내·해외 입양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농장에서 길러진 잔여견을 보호소에 수용한 사례는 없다”며 “농식품부가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sangja.jeong@jnilbo.com

함평서 무등록 오토바이·무단 출입·절도 10대 일당 입건

상가를 돌아다니며 수산물을 훔치고 글램핑장을 무단 침입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함평경찰은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일당은 지난 15~17일까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함평군 함평읍 상가를 돌아다니며 수산물을 훔치고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당은 3대의 오토바이를 몰고 함평 관내를 돌아다니던 중 2차레에 걸쳐 식당 밖에 있는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훔쳤다.

이후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이 비어있는 틈을 타 무단으로 침

입해 훔친 해산물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7시께 글램핑장에서 A군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에서 거주 중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식당 밖에 있는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일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부모님에게 인계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이 기자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3도를 보인 18일 두꺼운 외투를 입은 광주 동산초교 학생들이 은행나무 낙엽을 밟으며 등굣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섬에서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투약한 외국인들 구속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등 16명 송치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판매책 외국인 선원 A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해남과 진도 등 도서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을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 흡연·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섬 도서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

구로 이동해 소형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식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에서 제조 유통된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약 6000회 흡연이 가능한 대마 약 3kg을 압수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8개월의 긴 시간동안 잠복·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한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필로폰, 대마, 야바 등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 ‘첫 얼음’ 관측, 오늘부터 평년 기온 회복

오전까지 춥다가 오후부터 풀려 기상청 “13~15도 수준까지 회복”

올 가을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기록한 광주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 그러나 가을 맹추위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기상청 유인관측소에서 첫 얼음이 얼었다.

이는 평년(11월10일)보다 8일 늦고, 지난해와는 같은 날 관측된 것이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해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표면이 얼어 얼음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주요 지점별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무등산 영하 4.4도, 구례 성삼재 영하 3.9도, 광양 영하 0.8도

나주 영하 0.4도 등을 기록했다.

이번 추위는 1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아침 최고기온이 0도 내외 수준으로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평년(최고 기온 13~15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현기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